

나해·제2277호

연중 제13주일 · 교황 주일

2024년 6월 30일

춘천교주보



목차

02 말씀의 향기
믿음 속에 숨은 약속

03 평신도 단상
용기 내어놓을 용기

04 특집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¹³

05 교구 소식
미사 지향 알림에 대하여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 주세요.



천주교 춘천교구
www.cccatholic.or.kr

입당송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제1독서 지혜 1,13-15; 2,23-24

화답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제2독서 2코린 8.7.9.13-15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복음 마르 5,21-43 <또는 5,21-24.35ㄴ-43>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안수일 요한 보스코 신부
 관리국장 겸 가톨릭회관 관장

믿음 속에 숨은 약속



“인간의 행복은 신앙의 대상이자 목적인 하느님을 뵈옵는 데 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인간의 목적으로 설정하셨으므로 하느님과 합일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요 목적이다. 그러나 이 목적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므로 하느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 라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하고 어지럽고 힘든 요즘의 삶에,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한 행복을 얻고 누리기 위해 꾸준히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무엇이며, 그 행복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두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은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딸이 죽어가자, 예수님께 자기 집에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부탁을) 받아들여시고 그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길을 가던 도중에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회당장의 마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36절).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 예수님께서서는 울고 있던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죽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가 깊은 잠에서 깬 것처럼, 곧바로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요청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이야기 안에, 마르코 복음 사가는 다른 이야기 하나를 삽입시켰습니다. 하혈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낫게 된 치유 사화입니다. 여인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던 신적 구원 능력을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 아시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군중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했을 때,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34절).

이어진 두 개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가지 주제, 곧 믿음이 있고 예수님께서서 생명의 원천이시며,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되돌려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행복이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오늘은 교황 주일입니다. 교황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약한 우리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 자주 길을 잃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위해 진리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교황님께서 건강하시도록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보편적 친교를 이루어야 하는 사랑의 실재입니다.



용기 내어놓을 용기



“그라스락 4L 보울이 케이크 상자가 되는 마법”이라는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빵집에 들어섭니다. 메고 있던 배낭에서 커다란 뚜껑이 있는 유리 보울을 꺼내 점원에게 건네줍니다. 30분 뒤 뚜껑이 바닥이 된 유리 보울에 담긴 딸기 케이크를 받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라는 자막과 함께 미소 짓는 모습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한 시장에서 스테인리스 용기에 떡볶이, 튀김, 닭강정 등을 구입해서 담고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서 공원에 나들이 가는 한 가족의 영상도 보았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용기 내 캠페인”으로 상인들이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섰다 합니다. 말 그대로 용기 내어 집에서 가져온 용기에 식자재를 담은 고객에겐 10L짜리 종량제 봉투 1매를 선물합니다. 오는 2030년 모든 업종에서 일회용 비닐 사용을 금지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비닐과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절친 교우들과 하루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김밥을 썼는데 용기에 담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한 줄씩 들고 먹기 편리하게 포일에 말아 버렸습니다. “종이컵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자 텀블러에 물 담아 오세요.” 했지만 또 우린 습관대로 편리한 종이컵을 쓰고 있었습니다. 습관화된 행동을 바꾸려면 의도적인 노력과 함께 무한 반복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년 전 즈음 장바구니와 텀블러 사용을 시작했을 때 전에는 안 했던 행동을 하는 것이 눈치 보이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듯이 시장이나 마트에서도 당연히 용기를 내어놓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비닐과 일회용품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용기를 들고 순댓국을 사 왔습니다. 꽤나 뿌듯했습니다. 다음엔 마트나 장에서도 용기를 내어 봐야겠습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의 20가지 환경 회복 실천표 중에서 쓰레기에 관한 4가지를 기억하며 실천하기를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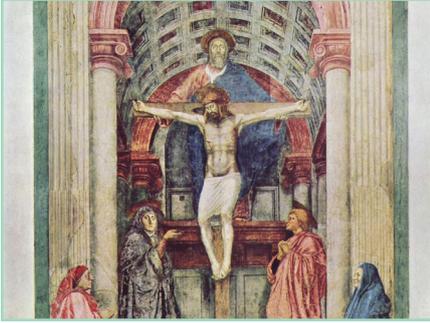
1. 비닐 및 플라스틱 사용 절제하기(용기 사용하기)
2. 일회용품 사용 멈추고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3. 쓰레기 분리 배출 바르게 실천하기
4. 택배 주문을 자제하여 과도한 포장 줄이기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아멘.”

-우려 지구를 위한 기도문 중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 바르게 실천하기

마사초 <성 삼위일체>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¹³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삼위일체 하느님

글 |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천주교 신자라면 누구나 수도 없이 반복하게 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에 바치는 성호경의 내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가 그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디만(특히 식사 전에) 무의식적으로 순식간에 할 때도 많아서 그 의미를 별로 생각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이 자체가 하나의 기도문이라는 것도 잊은 채 손은 이미 이마를 거쳐 가슴을 지나는 가운데 순식간에 외워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처음 그리스도교 신자가 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세례를 시작으로 모든 성사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집니다. 최근 교황청 신앙교리부에서는 성사 집행에 규정된 ‘동작과 말’에 대한 설명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전례문을 집전 사제가 임의로 바꾸어 “창조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라는 식처럼 한다면 그 세례는 무효이며, 만약 그런 세례를 받은 이가 견진을 받는 경우 심지어 사제품을 받아도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미국에서 실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신 하느님이심이 표현되어야 하며, “이름들”이 아닌 “이름”으로 한 분 하느님께서만 계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33항)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계시의 내용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인 만큼 삼위일체 신비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들에는 ‘신앙 진리들의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삼위일체 신비는 모든 신앙 진리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교리이며, 다른 신비들을 비추는 빛**(가톨릭 교회 교리서, 234항)으로 어떤 것들이 신앙 진리인지를 밝혀 주는 기준이 되는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신비는 어렵다, 인간은 본래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다. 그저 믿어야 한다. 삼위일체는 “하느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 하느님께서 계시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신비들”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 현장)이기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저 믿어야 한다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 신비에 대해 알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을 막아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창조 업적과 구약의 계시 안에 그 자취를 남겨 두시고, 성자의 강생과 성령의 파견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신(가톨릭 교회 교리서 237항) 이 신비를 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해 온 결과들을 마주하며 정말로 내가 무엇을 내 신앙이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매일 무슨 기도를 바치며 살고 있는가를 의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짧은 지면에 삼위일체 신비를 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며 자칫 쉽게 표현하려다 오해를 낳을 수도 있기에 제게도 조심스러운 작업입니다. 여기에서는 교리 지식에 대한 우리의 ‘문해력’을 높여보자는 것이 목적이니 교회가 삼위일체 신비에 관한 신앙 교리를 정형화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여러 신학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우리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작업을 함께해보려고 합니다.



QR코드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리서 120~133쪽, 232~267항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택배 주문을 자제하여 과도한 포장 줄이기

미사 지향 알림에 대하여

미사 지향을 알리는 것에 대하여, 신부님마다 약간의 다른 방식을 활용하다 보니 이에 관한 혼란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부님이 미사 지향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제가 미사 지향을 기억하며 미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미사가 오로지 그분들만을 위한 것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치 미사 지향을 넣은 분들이 그 미사를 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 구원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하여” (『미사 경본 총지침』, 79항) 봉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사 때 지향이 있는 것은 사제가 그 지향을 미사 안에서 특별히 기억하며 신자들과 함께 기도함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사 지향을 우리는 보통 ‘생미사’와 ‘연미사’로 나누곤 합니다. ‘생(生)미사’는 살아 있는 이들을 위해 드리는 미사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가정, 또는 공동체에 하느님의 은총과 필요한 도우심이 주어지길 청하거나, 또는 지난 시간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바치는 미사입니다. 반면에 ‘연(煉)미사’는 우리가 참례하는 미사의 공로를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위해 나누려는 뜻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미사입니다. ‘연미사’는 한국 교회 안에서 보통 ‘연옥(煉獄, purgatory)에 있는 이를 위해 드리는 미사’를 줄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 드리는 미사는 본래 ‘위령(慰靈)미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위령미사라고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위령미사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미사’가 아니라, 위령미사에 해당되는 기도문과 독서와 복음을 사용했을 때 위령미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장례미사 때 쓰는 기도문과 독서와 복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위령미사는 성찬 전례 감사기도 중에 미사 지향에 따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교회가 허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실 위령미사, 세례, 견진, 서품, 혼인, 서원, 동정녀 축복 등의 예식 미사를 제외하고, 감사기도 중에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평소 미사 안에서 흔히 연미사라고 하는 경우, 즉 그날 평일이나, 또는 축일에 해당되는 기도문과 독서와 복음을 사용하면서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경우는 엄밀히 말해서 위령미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불러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기도 중이나 미사 중의 다른 때에, 지향에 따른 성명이나 세례명을 호명하는 것은 전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사의 지향은, 미사를 봉헌하는 주례 사제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사 지향을 봉헌한 교우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와 정서적인 존중으로 미사 전에 지향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교구에서는 미사에 앞서 사제가 직접 지향을 알려주는 것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다만 장례미사를 비롯한 예식 미사(세례, 견진, 혼인, 서품 등)의 경우에는 호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그 미사는 해당 지향만을 기원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제10회 청년 도보순례
7. 5.(금)~7.(주일)

강원도종교평화협의회
7. 5.(금) 11시, 순복음춘천교회

사제평의회·참사회
7. 9.(화) 10시, 비대면

견진 성사
강촌 본당: 7. 11.(목) 10시

이동 본당 사목 방문
7. 12.(금)~14.(주일)

사제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7. 3.(수) 토마스
김정식·배중호·신호철·원선희·이승구 신부

진 야고보 신부 74주기



생년월일 : 1911.
서 품 일 : 1935.
선 종 일 : 1950. 7. 4.

춘천교구 무료급식소 '한살밥집' 운영안내

장소: 죽림동 주교좌 성당 식당
운영: 매주 월, 수, 토 11~13시 30분
신협 131-021-628060 (사회복지회한살밥집)
국민 301201-04-415579 (사회복지법인춘천교구사회복지회)
[ARS후원] 전화 한통 1만원 후원
060-700-5020 (오병이어)

후원
계좌

봉사자 모집

월, 수, 토 봉사 가능
※ 미리 연락 주시면 원하시는 날짜 조정
하여 봉사 배정이 가능합니다.
☎ 033-243-4545 춘천교구 사회복지회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구·반장 피정 3차
7. 6.(토) 10시, 가톨릭회관

7월 카나 혼인 강좌
7. 27.(토) 18:30, 애막골 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부부/관면혼배를 위한 부부
☎ 033-240-6095 가정생명환경부

성령새신봉사회
7. 5.(금) 19~23시, 운교동소성당
강사: 강요셉 요셉 신부 (구속주회)
미사: 19:30, 엄기선 베네딕토 신부
주차: 성당 및 운교노인복지센터 앞
☎ 010-2962-4051

성령새신봉사회 말씀과 치유 피정
7. 19.(금) 13:00~18:30, 스무숲성당
주제: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이사 2,5)
강사: 이미숙 아가다 수녀(도미니코회)
양창우 요셉 신부(성골롬반선교수도회)
미사: 17시 양창우 요셉 신부
☎ 010-2995-4051

어르신 제17차/혼성 제3차 꾸르실료
어르신: 7. 18.(목)~21.(주일) 가톨릭회관
혼성: 7. 25.(목)~28.(주일) 가톨릭회관
신청: 7. 7.(주일)까지, 본당사무실
각 차수별 35명 (선착순)
☎ 010-9558-1199

우리 본당의 자랑스런 평신도 찾기
후보자: 본당의 설립, 발전과정에서 남다른 사랑과
봉사의 실천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사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신분
추천자: 후보자를 잘 알고 있는 개인, 단체 또는 사목회
접수기간: 5. 15.~9. 30. / 양식: 본당 사무실
접수처: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033-243-4416, F. 033-253-8586

화현 이벽 성지
정규 미사: 매 (수)~(주일) 14시
성지 주소: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447
순례자 요청 있으면 인원, 시간 상관없이 개
별적으로 성지 미사 가능합니다.
☎ 031-531-2234 F. 031-535-2235

평화야 놀자!
7. 29.(월)~30.(주일) 가톨릭회관
대상: 초 3~초 6, 인솔 교사 1~2명
내용: 평화의 사도가 되기 위한 배움의 놀이·
활동·나눔·기도 / 일정표·준비물 추후 공지
참가비: 7만원 / 신협 131-019-838389
신청: 7. 15.(월)까지 (선착순 30명, 입금기준)
메일접수: ccccenter@daum.net
☎ 033-245-7300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7. 14.(주일) 14~16시, 퇴계 성당
매월 둘째주 주일 / 예약 후 정해진 시간에 상담
천주교 인권 위원회 위원 차진태 모세
☎ 010-3721-9144

춘천 교정봉사회 봉사자 모집
남사: 매 (목) 15시
여사: 마지막 (화) 15시
☎ 033-264-5011 한삶의집

좋은 이웃 상담실 운영 안내
심리, 신앙, 부부, 자녀, 아동 상담 실시
춘천·영동: 월~금(10~17시)
☎ 033-253-6006 춘천, 645-6016 영동

본 당 알 림

양양 물치성당 사무장 모집
사무장 1명 (15개월 계약직, 경력자 우대)
대상: 세례받은지 3년 이상 신자
(사무행정, 회계업무, 엑셀, 한글 가능자)
서류: 자필이력서, 본당 주임 신부님 추천서
접수: 매일 bds0007@naver.com 6. 30.까지
☎ 010-4482-5977 문자 접수

죽림동성당 "주일밤미사·평일낮미사"
주일 밤: 매 (주일) 21시
평일 낮: 11시 연중무휴
누구나 오실 수 있고, 언제나 환영합니다.

주교좌 죽림동 성당 상설 고해소
매 (목) 14:00~17:30

영동지구 상설 고해소
매 (금) 14~17시, 임당동 성당

중앙산부인과(속초)

산전진찰, 부인과진료, 골다공증 관리
국가암건강검진(자궁, 유방암)
성인 예방접종, 영양수액
☎ 033-637-9887
김군하 다미아노

타파웨어 춘천 중앙점

무공해 무독성 김치통, 냉장·렌지용기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타파웨어
정수기, 혼수용품
중앙시장 제일백화점 2층
☎ 010-9042-3638 김소정 안젤라

타워온누리약국

병·의원처방조제, 반려동물의약품조제판매
개인맞춤영양제(셀로맥스, 셀메드 등)상담
센트럴타워푸르지오 상가 2층2228호
☎ 033-255-3300
김성한 T.아퀴나스·정은지 세실리아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김길영 마르티노

인준시설

마리아의 집

미혼입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 입소가능 (재)착한목자수녀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입니다. ☎ 033-264-0194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교육

7. 5.(금) 10~12시,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제: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과다사용에 관한 부모교육 / 7. 2.(화)까지 전화접수 ☎ 033-818-1389 www.8181388.co.kr

성골롬반의집 직원 및 입소어르신 모집

분야: 요양보호사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해당시) / 접수: 방문, 팩스, 이메일 colum2004@hanmail.net 입소어르신모집: 노인장기요양시설입소1~5등급 ☎ 033-262-0935~6 팩스 262-0937

춘천시립요양원 입소자 및 직원 모집

입소자 (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 급여대상자)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033-261-9658

수신부님들과 함께하는 노인요양원입소자모집

대상: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 분 운영: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 033-458-9422 몬띠노인요양원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

1년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가정폭력·성폭력 등에 관한 위기상담과 긴급구조, 긴급보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033-1366

갈바리노인복지센터 방문재가 어르신모집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택을 직접 방문하여가사 및 취사, 말벗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033-644-3477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위성 TV 184번 / olleh tv 231번 / B tv 307번 / U tv 274번

평화 장례를 돕는 사람들(춘천)

힘들고 어려운 장례 후불제로 진행 (제휴 장례식장 할인) 묘지관리·이장·벌초/무엇이든 물어보세요(전국 어디나 가능) ☎ 010-2678-9789 홍성식 토마스

대건 건설·조경·중기

홍천 지역 각종 굴삭기, 덤프 임대 토목·택지·조경 공사·객토 ☎ 010-5361-5641 한성근 대건 안드레아

함경도 아바이 젓갈(속초)

한국인의 밥상 KBS 1TV 촬영 가자미식해 촬영지 / 가자미식해, 명란, 창란, 오징어젓갈, 각종 젓갈 ☎ 632-6561, 010-3341-0470 양수근 임마누엘·박순옥 임마누엘라

신영측기사(서울)

측량기, 광파기, GPS 데오도라이트, 레벨 ☎ 02-2619-4455 ☎ 010-6245-3450 고한용 요셉

스타키보청기 춘천난청센터

청력검사/ 난청상담/ 보청기상담 춘천 이마트 건너편 위치 ☎ 033-251-3131 김형근 프란치스코

춘천 장례식장

검안의 상시 대기 교구 협약 특별혜택 ☎ 010-4479-4414 이성범 요셉 사무국장 전국장례지도사연합회

산골농장 흑염소 건강원

"청정 양구" 자연 방목 흑염소 "30년 전통"의 농장 직영 건강원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010-6443-4811 신양순 다리아

가람 익스프레스

일반, 포장, 보관이사, 전문업체 향상 미소짓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합니다. ☎ 244-2439, 010-9125-2828 강길훈·김경옥 비르짚다

일반알림

착한목자수녀회“잠시멈춤”청년기도모임

7. 15.(월) 19:30, 한삶의 집 1층(거두리) 대상: 남, 여 청년(미혼) ☎ 010-7197-1390 문의 효주수녀

예수마음선교수녀회 기도 장소 대관

장소: 경기도 여주 신단2길 109-13 대상: 개인 및 소그룹(6명 이내) 구성: 경당, 개인침실 6개, 거실 및 주방 기타: 식사(직접취사), 여주전철역-자가용 10분 ☎ 031-885-5015

가톨릭춘천신협 거두리지점 OPEN 기념

가톨릭춘천신협 거두리지점 개점을 기념하며 예·적금특판을 진행합니다.

판매일시: 7월 1일~ 자금(100억원한도)소진시 조기마감 ※영업점 방문 판매 상품*

교우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가톨릭춘천신협 본점 ☎ 033-255-6742 지점 ☎ 033-262-6742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밀알재활원 직원모집

분야: 조리원 2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공정한 채용을 위해 출신학교, 주민번호, 사진, 추천인, 종교 기재금지 접수: 우편, 이메일 irene- moon@naver.com ☎ 033-261-3112 www.milalfriend.or.kr

제주, 전국 167곳, 일본, 베트남, 마카오 성지순례

제주, 전국 167곳-36만원 베트남, 마카오, 북해도, 아키타, 도쿄, 오사카, 나가사키 각 3박 4일-120만원 ☎ 010-4239-1929 마르코투어

성도미니콘선교수녀회 피정안내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7. 5.(금)~7.(주일) 효소단식: 7. 11.(목)~14.(주일)/8. 9.(금)~12.(월) 성경완독: 7. 26.(금)~8. 3.(토)/8. 23.(금)~31.(토) ☎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8. 19.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525만원) 10. 7.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3일 (550만원) 10. 14.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75만원) 10. 23. 발칸3개국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지 11. 21.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지 10일 ☎ 010-5235-3533 www.catholictravel.co.kr

예수회후원회 성지순례

8. 6.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45만원 9. 26.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발자취 10일) 440만원 10. 9. 터키, 그리스(사도바오로 발자취 12일) 470만원 10. 22.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30만원 11. 4. 알프스주변 수도원 및 성모성지(KE12일) 530만원 ☎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2024 모여라 가톨릭 영상 공모전 안내

접수: 8. 1.(목)~9. 1.(주일) 주제: 신앙캠프 뭐하니?(주일학교 여름 신앙학교와 관련된 자유영상) / 자격: 본당, 단체, 수도회 및 세례받은 신자 누구나 /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 모여라 가톨릭 mocatholic.or.kr 에 영상 등록 ☎ 031-8019-5403 수원교구 모여라 가톨릭